

예술 페이퍼 토이 되었다

작가들 잇단 전시회·만들기 체험 ‘뽐’
DNA 스튜디오, 영화 캐릭터 제작
“광주 문화 콘텐츠 활용 작품 개발할 것”



지난 1일 조선대 후문 인근에 있는 문화카페 ‘카르페디엠’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페이퍼토이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와 아이들은 직접 종이를 접고, 풀로 붙이면서 슈퍼맨, 배트맨, 플래시맨 등 영웅 캐릭터들을 직접 만들었다. 아이들은 평소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접했던 영웅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소장하는 행운을 누렸다. 종이를 이용해 다양한 모양의 장난감과 인형 등 캐릭터를 만드는 ‘페이퍼토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페이퍼토이는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체험학습과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페이퍼토이를 개발하는 기업, 예술 작품과 접목시키는 작가도 늘고 있고, 관련 서적도 잇따라 출간되는 추세다.

지난 3월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 ‘아트토이’전에서 만난 광주지역 우드토이 작가 양재영씨도 자신의 작품을 페이퍼토이로 만들어 선보이고 있었다. 당시 전시장을 찾았던 기자도 양씨에게 선물 받은 페이퍼토이 ‘로봇 찰떡’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동명동에 있는 카페 ‘소소한 풍경’에서 열린 그래피티 아티스트 류금상씨의 전시에서도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페이퍼토이가 전시, 판매되기도 했다.

지난 1일 행사는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라이프매뉴얼’과 광주에서 페이퍼토이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DNA DesignStudio’(이하 DNA스튜디오)가 진행했다.

조선대 시각디자인학과 출신 이두형(35·안지은(여·29)씨 부부가 운영하는 DNA스튜디오는 지난 2010년부터 페이퍼토이를 개발해 강좌나 전시회를 열고, 기업들과 활발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DNA스튜디오는 당초 ‘키틸트 문화’를 대표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아트토이 개발을 준비하다 페이퍼토이로 방향을 선회했다.

“누구나 쉽게 만들고 소유할 수 작품을 만들



‘페이퍼토이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만화 속에서 본 영웅들을 직접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보급하자는 생각으로 페이퍼토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직접 만들면서 집중력향상과 입체조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린이들의 교구재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좌를 진행하면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 수집하기 위한 성인들도 많이 찾아와요.”(이두형)

DNA스튜디오에서 현재 선보이고 있는 캐릭터는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등 직접 라이선스를 구매해 만들고 있는 워너브러더스사의 ‘영웅시리즈’와 엄라대왕, 옥황상제 등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개발한 ‘아몽시리즈’가 대표적이다.

또 영화 배급사인 프레임 무비와 영화 머드(MUD)의 캐릭터를 페이퍼토이로 제작했고, 지난 5월 광주문화재단과 5·18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페이퍼토이 국화꽃을 만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노숙자들의 자활을 위해 제작되는 글로벌 잡지 ‘빅이슈’의 한국판 4주년을 기념해 재능기부로 ‘빅판’(빅이슈 판매자)의 캐릭터를 제

작, 잡지 부록으로 넣기도 했다.

가위나 칼을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DNA스튜디오 페이퍼토이의 장점이다. 또 만든 작품에 직접 색을 입혀 본인만의 개성 있는 캐릭터로 만들 수도 있다.

이씨는 “페이퍼토이는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비해 캐릭터가 가지는 독특함과 장식성이 뛰어나며,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쉽게 교감할 수도 있다”며 “세상에 없는 본인만의, 본인의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광주지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페이퍼토이 개발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DNA스튜디오와 라이프매뉴얼은 오는 23일 오후 까르페디엠에서 두 번째 ‘페이퍼토이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재료를 포함해 1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프매뉴얼 홈페이지(<http://thelifemanual.co.kr/>)와 DNA스튜디오 블로그(http://blog.naver.com/dna_desig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만해문학상

소년의 눈으로 본 5·18

제29회 만해문학상에 소설가 한강(44)의 ‘소년이 온다’가 선정됐다.

문학평론가 백낙청 씨 등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무구한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5·18의 깊은 상처를 톺아내며 그리면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조명한 치열한 작가적 고투와 그 탁월한 예술적 성취를 높이 평가해 만장일치로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설은 5·18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동호와 정대의 이야기를 축으로 전개된다. 정대는 시위대와 행진 도중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죽게 되고 동호는 정대



의 시신을 찾기 위해 도청 상무관에 들렀다 시신 뒷수습을 돕는다. 소설은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던 형과 누나들이 겪은 5·18 전후의 이야기도 담아낸다.

제32회 신동엽문학상에는 시인 김성규(37)의 ‘천국은 언제쯤 망가진 자들을 수거해가나’와 소설가 최진영(33)의 ‘팽이’가 공동 선정됐다.

상금은 만해문학상 2000만 원, 신동엽문학상 1000만 원이다. 시상식은 11월 말에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

인생은 선율을 타고

선이고운치과 갤러리
율여조양(律呂調陽)전

그림책 일러스트 작가, 작곡가겸 뮤지션, 독립애니메이션 감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만나 음악을 삶에 빚든 작품들을 선보인다.

광주시 동구 광천동에 있는 선이고운치과 갤러리는 오는 30일까지 ‘율여조양’(律呂調陽)전을 연다. 율여조양은 천자문에 나오는 어구로, 12가지 음양(陰陽)이 조화를 이뤄 음악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강혜숙씨와 최용호씨는 그림책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꾼이다. 이영일씨는 오랫동안 음악을 만들어온 사람이며 김준씨는 일상적인 삶을 그려온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강혜숙씨는 사라진 LP음반의 낡은 레코드 재킷을 되살렸다. LP는 사라져 버렸지만 음악만은 즐거움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김준씨는 1초를 8개로 나눠 연결시킨 애니메이션 작품을 선보인다. 연결된 이미지들은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나 하나의 흐름으로 다가온다.



최용호 작 ‘muse’

최근 ‘교묘요람’이라는 이름으로 첫 앨범 ‘unfinished’을 낸 작곡가 이영일씨는 자신의 곡을 회화 작품으로 만들었다. 최용호씨는 여러가지 악기들로 틀없이 짜맞춘 음악가의 초상을 소설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 표지 작업을 통해 보여준다.

문의 062-367-2279. /김경인기자kki@

디지털·종이책 연계 ‘더책’ 서비스 개시

창비 등 출판사 25곳 참여

창비 등 국내 유수의 출판사 25곳이 한데 뭉쳐 종이책과 디지털 서비스를 연계하는 융·복합 통합서비스 ‘더책’을 상용화한다.

5일 창비 등 참여 출판사들에 따르면 ‘더책’은 창비 계열사인 창비미디어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창비를 비롯해 길벗어린이, 김영사, 문학과지성사, 사계절, 현암사, 풀빛 등 25개 출판사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독자가 책에 부착한 NFC태그에 스마

트폰을 가져다 대면 오디오북이나 기타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별도의 번거로운 인증절차나 저장장치가 필요없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추후 아이폰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한다.

‘더책’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등에 우선 도입돼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비는 ‘더책’ 상용화를 기해 ‘두근두근 내 인생’, ‘엄마를 부탁해’, ‘완득이’를 오디오북 무료제공 특별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연합뉴스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 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충장점 062)227-9970
창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 ☎ 1899-0240

소파 식탁 보신매

8월18일까지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가정용/업소용 150~400c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SPACE 가구빌딩**